

'미래 먹거리' 바이오산업 현장 소통 나서

우범기 전주시장,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전북대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 등 찾아 운영 현황 점검

전주시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해 핵심 연구 인프라 구축 현황을 찾아 소통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6일 전북대학교에 구축된 바이오 분야 핵심 연구·지원 시설인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와 전북대학교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 전북대병원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주시 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우 시장은 센터별 첨단 연구 장비와 인프라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현장 종사자들과의 간담회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6일 전북대학교에 구축된 바이오 분야 핵심 연구·지원 시설인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와 전북대학교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 전북대병원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를 통해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산업체와 대학, 연구소,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학·연·병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구축된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병원의 임상 역량을 결합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가 글로벌 바이오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연구자들과 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산·학·연·병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탄탄한 생태계를 조성해 바이오산업이 전주의 강력한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시민 마음건강 지원 나선다

전주형 평생학습 마음 온(ON) 편의점' 운영기관 모집

전주시는 오는 13일까지 시민 누구나 가까운 생활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기반 마음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전주형 평생학습 마음 온(ON) 편의점'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닌 일상 속 학습과 문화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자기 회복 역량을 사전에 강화하는 예방적 차원의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각 권역별 학습공간을 활용해 '마음온(ON) 편의점'을 상반기 8개소 내외로 지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기관은 전주시가 제시

한 4개 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운영 프로그램은 △학습기반 치유형 '마음을 쓰다, 한글서예' △문화예술 자유형 '마음을 소리내다, 판소리' △인문학 향유형 '마음을 두다, 바둑' △생활회복 여 유형 '마음을 쉬다, 밸런스 워킹'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과정은 주 1회, 회당 2시간, 총 12회로 운영되며, 15~20명 규모의 소규모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을 위한 강사로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학습매니저 활동비와 통합 홍보도 함께 지원해 운영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 기관 자율 기획 방식이 아닌 시 지정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기관별 운영 편차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권희성 기자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전면 개편

전주시, 4월부터 이용 가맹점 확대·카드 디자인 개선

전주시는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이 오는 4월부터 전면 개편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급식카드 이용 아동들의 선택권 확대와 낙인감 해소를 위해 이용 가맹점을 늘리고, 카드 디자인을 일반 금융사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러 카드사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신한카드(주)를 수행 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후 시는 해당 카드사와 3년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아동급식카드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성능 개선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시는 새로운 카드 도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카드 교체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등 오는 4월 1일 시행 전까지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아동급식카드를 신한카드 가맹 일반 음식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돼 가맹점 수가



전주시는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이 오는 4월부터 전면 개편돼 시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카드 도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용 교육을 실시했다.

기존 1200여 곳에서 9000여 곳으로 대폭 늘어나 결식 우려 아동의 메뉴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카페와 주점, 포장 등 아동급식 이용에 부적절한 업소는 가맹점에서 자동 제외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농기센터,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

전주시가 올해도 전주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키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지난 6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거나 도시농업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의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총 80시간 동안 진행되며,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5

일부터 1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했으며, 이번 양성과정에 선발된 교육생들은 앞으로 △도시농업의 이해 △텃밭작물 재배 △텃밭 프로그램 기획 △치유농업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을 보유한 수료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후 도시농업 프로그램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도 주어진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설명회 열려

전주시가 강한 경제 전주를 이끌어갈 예비 청년 창업자 발굴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일 전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2026년 전주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들에게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설명회에서 참석한 청년 예비 창업자들은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2일까지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 예비 창업인에게 교육·컨설팅과 사업화 자금(타입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2026년 전주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요건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8760)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선 전주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창업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산동 대자연국제여행사 대표와 중국전담여행사 관계자 등 총 20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전주시,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한 현지 여행사 팸투어 진행

전주시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현지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 마케팅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산동 대자연국제여행사 대표와 중국전담여행사 관계자 등 총 20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인근 남원시의 협업을 통해 중국 현지 여행사들과 함께 한국문화체험으로 차별화된 관광코스를 사전답사하고, 실질적인 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팸투어 일정은 3일간 전주 일원에서 핵심 관광자원을 답사하도록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방문단은 △K-뷰티 체험

△전라감영 야간 투어 △전주한옥마을 방문 △한복 체험 △남부시장 야시장 방문 △구도심 일원(예리단길, 이시계정, 객리단길) 방문 등을 통해 주·야간 매력을 모두 경험했다.

시는 이러한 세밀한 현장답사를 바탕으로 현지 여행업체와의 실질적인 방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심도 있는 실무 논의도 진행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 현지 여행사와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한 여행 목적지로서 '관광기점도시 전주'의 인지도를 한층 끌어올려 신규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실질적인 중국 관광객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직업마을축제 최우수 축제

2026~2027
진안야생
방문의 애

제22회
진안고원운장산
고도식축제

맑은 산속, 건강 한 모금!
2026. 3. 14.토~15.일
진안군 주천면 윤일암반일암 삼거광장
문의처 : 063-430-2391~3

주최 **진안군** 주관 **진안고원운장산고도식축제위원회**

홈페이지 QR코드